



## 제1장 알파티하

메카에서 계시된 7절로 자주 낭송되는 꾸란의 진수다. 몇번이고 반복해서 읽을 7절이라고 꾸란(15:87)은 언급하고 있다. 무슬림이 하루 다섯 차례의 예배를 통해서 최소한 17회 이상 암송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본장을 암송하지 않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이바다 이븐 사미트」는 전하고 있다.

본 장은 이슬람의 기본원리를 비롯하여, 우주만물의 운행질서를 주관하는 주체자에 대한 인간의 태도, 내세관, 경배와 구원의 대상자, 인류가 걸어야 할 바른 길, 무한한 사랑과 자비의 수여자이신 하나님의 속성, 신의 노여움을 받았던 민족과 방황했던 민족에 대한 역사적 사건 등을 언급하고 있다.

본 장의 명칭은 「알파티하」 외에도 책중의 책(Ummul Kitāb), 찬양(al Hamdu), 질병의 치료(al Shifā'a), 무궁무진한 지식의 창고(al Kanj) 등 12가지 이름을 갖고 있다.

모든 예배는 본 장이 제일 먼저 암송됨으로써 시작되고 예배의 효력이 발생한다. 즉 본 장이 암송됨으로써 신앙의 문이 열린다는 의미에서 개경장(Fātiha, or the Opening Chapter)이라 불리워지게 된 것으로 본다. 본 장이 서두에 있으나 그것은 계시된 순서가 아니라 편집상의 순서일 뿐이다.

## 제 1 장

1.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sup>1)</sup> 하나님<sup>2)</sup>의 이름으로<sup>3)</sup>

2. 온 우주의 주님이신 하나님께 찬미<sup>1)</sup>를 드리나이다

3. 그분은 자애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4. 심판의 날<sup>1)</sup>을 주관하시도다

5. 우리는 당신만을 경배하오며 당신에게만 구원을 비노니<sup>1)</sup>

6. 저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①

الْحَمْدُ لِلَّهِ رَبِّ الْعَالَمِينَ ②

الرَّحْمَنِ الرَّحِيمِ ③

مَلِكِ يَوْمِ الدِّينِ ④

إِيَّاكَ نَعْبُدُ وَإِيَّاكَ نَسْتَعِينُ ⑤

اهْدِنَا الصِّرَاطَ الْمُسْتَقِيمَ ⑥

- 1-1) 같은 어원에서 유래된 창조주에게만 있을 수 있는 자비와 은혜와 은총을 말하며 99개 창조주의 은총 가운데 2개의 은혜로 해석되고 있다.
- 2) 지상에는 수많은 언어가 있다. 이 모든 언어에는 창조주를 호칭하는 이름이 있다. 그 창조주의 이름을 미국사람은 '가드(God)'라 하고, 페르시아인들은 '쿠다(Khuda)', 인도인들은 '데바(Deva)', 아랍인들은 '알라(Allah)', 라틴어로는 '테우스(Deus)', 독일어로는 '고트(Gott)', 한국 말로는 '하나님'이라 한다.
- 3) 창조주가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말씀을 계시할 때 예언자로 하여금 말씀을 계시 받는 방법이며 또한 무슬림이 꾸란을 읽는 방법의 예절이기도 하다. 이 절은 아랍어 '비쓰밀라 히르 라흐마니 라흐림'의 약자는 '비쓰밀라'로 다음 사항에서는 이 '비쓰밀라'를 암송하는 것이 무슬림의 예의로 되어 있다.  
 첫째 ; 말이나 웅변, 일을 시작하고 글을 쓰기 시작할 때  
 둘째 ; 우두(예배하기전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하기 위해 몸을 씻는 것)를 할 때  
 셋째 ; 짐승을 도살할 때  
 넷째 ; 음식을 먹기 시작할 때  
 다섯째 ; 부부 생활에 들어갈 때
- 2-1) '슈크르'가 인간의 어떤 물질적이며 제한된 은혜에 대한 '상대적 감사'의 표현이라 한다면, '함두'는 한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절대적 '감사'를 의미한다.
- 4-1) 인간의 현세 업적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심판의 날
- 5-1) 우리가 경배함에 당신만을 경배하고, 우리가 구원할 때 당신께만 구원을 하며 당신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경배하지 아니하며 구원하지 않으므로써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예의와 경의를 창조주 당신께로 돌리며,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당신의 전능으로부터 구원하겠습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밖에 없으므로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께만 경배와 구원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7. 그 길은 당신께서 축복을 내리신 길이며 노여움을 받은 자<sup>1)</sup>나 방황하는 자들이<sup>2)</sup> 걸지않는 가장 올바른 길이옵니다

وِرَاطَ الَّذِينَ أَنْعَمْتَ عَلَيْهِمْ ۚ غَيْرِ الْمَغْضُوبِ عَلَيْهِمْ  
وَلَا الضَّالِّينَ ۝

7-1) “노여움을 받은 자들”이란 ‘유대인’을 가르킨다. 모세를 통하여 구약이 계시되었을 초기에는 유대인들이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다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등 말씀을 조작하기 시작하자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하여 노여워 하셨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노여움을 받은 자들로 풀이되고 있다.

2) “나스라니운” 즉 기독교인들의 모체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자 다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통하여 신약을 계시하여 인류로 하여금 말씀을 따르도록 하였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모든 백성이 말씀대로 행하다가 후반에 들어서면서부터 말씀에 순종치 않고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첨가하는 등 하나님의 본래 말씀을 변질시켜가자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방황케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방황하는 자들”로 풀이되고 있다.